



순수한 사랑을 찾아가는 시간여행

- 영화 '박하사탕' 을 보고 -

이선재/MBC보도국 문화부 차장

포 화 '박하사탕'이 소리없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래서인지 주인공이 시냇물을 가로지르는 철교 위에서 달려오는 열차를 향해 절규하며 자살하는 첫 장면 촬영지인 충북 제천 진소천에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다고 한다.

하루 서너번 충북선 열차가 지나갈 뿐이고 시내 버스에서 내려 비포장길을 3,40분 걸어야 하는 오지인데도 말이다. 왜 그럴까?

영화는 주인공이 자살한 뒤 장면이 철길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시간 속으로 스며든다. 다음 장면은 주인공이 자살하기 전의 상황 한 대목. 그 대목이 끝나면 그 대목의 과거 한 대목. 다시 그런 식으로 과거의 과거를, 과거의 과거로 마지막 장면은 영동 포구 가리봉동 공장 종업원들의 소풍 장면.

장소는 주인공이 자살한 바로 그곳. 영화의 첫 장면은 바로 20년이 흘러 그 공장 종업원들이 옛날 소풍왔던 장소에서 다시 만나 추억을 더듬고 있었고 뒤늦게 나타난 주인공이 철교 위에서 자살하는 장면이었다. 왜 자살했을까?

순수하고 맑은 주인공 등장장면은 소풍길에서 하루에 수천 개씩 박하사탕을 사는 일을 하는 여자 주인공에게 꽃을 쥐어 주면서 사진사가 되는 꿈을 갖는다. 군대에 간 주인공은 고참의 폭력을 참아가며 여주인공에게서 온 편지와 박하사탕을 함께 받아 간직하면서 꿈을 키워간다. 군대 출동에서(광주 민주항쟁) 주인공은 실수로 여자대학생을 총 쏘 죽인다. 주인공은 군대를 나와 형사가 된다. 노조 인물들을 잡아들이며 손에 피를 묻히고 고문하면서 손에 땀을 묻힌다. 형사를 그만두라며 찾아온 여주인공의 사랑을 거부하고 가게집 딸과 결혼한다.

노조 인물에게 묻는다. 삶은 아름답냐고, 형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 여자 종업원과 바람 피우고 바람 피우는 아내를 현장에서 잡아 때리고는 같이 살아간다. 형사때 잡아와 때린 노조인물을 만난다.

다시 묻는다. 삶은 아름답냐고, 왜 물었을까?

총을 잘못 쏘 여대생을 죽게 한 죄책감 때문에 주인공은 자신의 삶을 포기했나? 군대의 폭력과 형사 시절의 폭력이 인간성을 파괴했나? 순수했던 주인공의 영혼은 조그마한 비순수에도 견딜수 없었나? 여주인공과의 미래와 꿈으로도 주인공은 삶을 조금이라도 사랑할 수 없었나? 순수는 한번 버려지면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인가?

영화를 보고난 뒤 주인공에 대해서 '저런 미친놈이 있나' 하고 생각했다.

여대생을 총 쏘 죽인 것은 실수였지 않은가? 또 그 실수를 타하는 사람도 없지 않은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주어야 하는 사랑, 받아야 하는 사랑을 모두 거부하고 삶을 파괴해 자살하면 어찌란 말인가? 사랑을 간직하다가 박하사탕 여인이 죽자 따라 자살한 것은 너무 비겁하지 않은가?

너무도 많은 질문을 내 자신에게 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아! 그래서 주인공이 그렇게 방황을 했구나. 답을 찾을 수 없어서 삶을 포기했구나. 찾은 답이 그래서 자살이구나. 정말 그런가?

박하사탕을 본 사람들이 나처럼 혼란스러워 주인공이 소풍을 갔고 또 자살한 그 현장을 찾아가나 보다. 순수를 찾아 보기 위해서, 고뇌를 찾아 보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인생이 아름답냐는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가 아닐까? (답을 찾았다면 주인공은 자살하지 않았을까?)